기업탐방

(주)남영 L&F

남 석 엽 〈55기〉
(주)남영 L&F / 상무이사

선두 기업 남영L&F만 매출 증가

올 상반기, 속옷업계 불황 속 남영L&F만이 매출 17% 신장

각 속옷 업체들의 상반기 매출 실적을 결산한 결과, 남영L&F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 감소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불황이 계속되었다. 업계의 선두 기업인 남영L&F만이 17%라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을 뿐, 쌍방울과 좋은사람들은 두 자리 수의 매출액 감소를 보였고, 신영와코루와 비와이씨도 소폭의 매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1/4분기에 이어 상반기 속옷업계 1위를 기록한 남영L&F은, 유일한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보다 17%의 높아진 1,11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. 가장 하락폭이 큰 업체는 좋은사람들로 전년 동기대비 18% 감소한 429억원을 기록했으며, 쌍방울도 16%가 감소한 108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. 신영와코루와 비와이씨도 각각 -2%, -1%씩 감소한 772억원과 861억원을 기록했다.

2003월 1월에서 6월까지의 속옷 업체 매출액 순위는 남영L&F(1,113억), 쌍방울(1,086억), 비와이씨(861억), 신영와코루(772억), 좋은사람들(429억)순으로 나타났다.

유일한 흑자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선두를 유지한 남영L&F은, 47회계년도(2002년7월~2003년6월)결산 결과 전기의 1,836억 원보다 21% 증가한 2,230억 원을 달성했다. 순이익의 경우, 전기 대비 15% 증가한 122억 원을 기록했다.

(주)남영L&F의 김진형 대표이사 사장은 "선두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장상황아래, 남영L&F은 지난 1/4분기에 이어 상반기에도 속옷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. 유통구조의 개선에 이은 브랜드 다각화, 잇따른 신상품의 성공, 첨단 물류센타 운영에 따른 경비절감 등이 남영L&F의 지속적인 매출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.
남영L&F은 앞으로도 '고객 감동 서비스', 'TOP프로그램 도입' 등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경영전략으로, 속옷 업계를 이끄는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모든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"

**남영L&F 회계연도 결산 결과,
매출액 21% 순이익 15% 증가**

(주)남영L&F이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의